

도, 청년 친화적 일자리 발굴 '주목'

청년정책팀 신설 '기본계획' 수립·청년기본조례 제정 협력... 53개 청년정책 과제 등 추진

전북도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업 발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청년정책팀을 신설 하면서 청년일자리와 문화, 복지, 주거,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청년종합대책 추진계획은 '청년과 함께 가는, 생동하는 전북 실현'을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복지 활성화, ▲청년 주거안정 확대,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중장기 청년정책 수립은 물론 단기 대책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청년기본법안'과 타 시·도의 유사 조례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더욱 세밀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년일자리, ▲청년문화, ▲청년복지, ▲청년주거자금, ▲청년거버넌스지원 등 청년정책 TF팀을 5개반으로 구성해 53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앙부처와의 연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도 전개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협력제안사업인 '청년지원 정책 공동발굴 추진 및 교류확대'를 통해 청년활동현장 방문 및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공유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도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지원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인 청년몰 조성사업을 전주 서부시장, 군산공설시장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학 중심의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일 경험 내실화 및 확대에 나서는 등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주대와 원광대에 설치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가 대학생은 물론 지역 내 모든 청년들에게 윈윈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고용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이다.

도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흥 전 회장, 도 정무부지사 내정

전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전흥(58·사진) 전 생산성본부회장이 내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민선 6기 하반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파트너로 청와대 행정관, 산업자원부 등에서 근무한 전 내정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전주 출신인 전 내정자는 전주교과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제25회 행정고시로 총무처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뒤인 2011년 한국생산성본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경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현재는 한국중

부발전 비상임 이사와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23년 세계캠버리 대회 유치,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도는 신원조회 등의 임용절차를 거쳐 10월 초에 정식으로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2016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전민재 선수 포상금 전달식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전북출신 육상의 전민재 선수에 대한 포상금 전달식이 지난날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장애인 육상의 얼굴 전민재 선수, 선수 가족, 도청·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에서 은메달(육상트랙 경기)을 획득한 전북소속 전민재 선수와 한재영(전민재 선수 어머니) 여사에게 포상금과 꽃다발을 걸어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에서 22개 종목 중 11개 종목 13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7, 은11, 동17개를 획득, 벨라루스에 이어 종합 20위를 기록했다.

도에서는 육상과 사이클 2종목에서 2명의 선수가 출전, 육상의 전민재(T36) 선수가 200m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해 포상금을 받았다.

송 지사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환경조성과 우수한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 기자

기상 특보 정확도 8개 중 7부문 2012년보다 하락

기상 특보의 전체적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월 현재 특보 정확도 8개 부문 중 7개가 201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 호우, 건조, 강풍 특보는 정확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뉴시스

전북, 내진보강 투자율 1.1% 전국 꼴찌

2011~2015년 379곳 1218억 투자 계획... 26곳 131억7000만원 그쳐

전북도의 지진 발생 대비 내진보강 투자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지난날 30일 발표한 '광역 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에 따르면 전북의 투자금액 대비 투자율은 1.1%에 불과했다.

내진성능 확보계획은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청사 등 공공 건축물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9곳에 1,2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26곳에 131억7,000여 만 원 투입하는 데 그쳤다.

설치 개소 수 대비 확보율은 겨우 6.88%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금액대비 투자율 역시 1.1%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역별 내진보강 투자율을 보면 제주가 26.8%로 가장 높고 서울 15.6%, 충북 13.6%, 강원 6.9% 경기 6.0% 등이다.

내진보강 부진은 지방 재정상황 때

문에 저조할 수도 있지만 시도별 내진보강 미이행 현황과 광역단체들의 연간 예산불용액을 보면 시·도정 방향과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황 의원은 "이번 경우 지진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 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 때 충실히 이행해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이 닥쳤을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순창 교육지원경비, 전국 꼴찌 아니다

지난해 34억원... 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은 2015년도 한해 동안 학교당 4,000원 만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총 25개의 초중고에 달랑 10만 원만 지원한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순창군은 단번에 응징되고 인색한 지자체가 돼버렸다.

이 자료는 교육경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갖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순창군은 역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총액으로 볼 때 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으니 말이다.

지자체가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비법정 전입금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가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다.

이번에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 만 갖고 작성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순창군은 2015년에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원 정도를 집행했다.

이 중에 학교직접 지원금은 44만 원인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에 10만 원을 지원했다.

비법정 전입금 7억 원은 관내 25개 학교의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 급식 등 7개사업에 지원했고, 군 직접 집행액 27억 원은 육원인재숙 운영 등 25개사업에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순창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군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이며 다른 지자체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을 뿐이다.

적은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발표와 관련 순창군은 교육경비 지원에 절대 인색하지 않다"고 하면서 "교육이 살아야 순창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